**마1128 Note**

**◆이정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 Zambrano**

주님은 제게 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그들이 이 곳으로 오고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겠노라”

주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며 걷고 있는 한 터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서 발끝까지 묶여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네가 보는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단다. 그들의 등에

지고 있는 것은 죄란다. 가서 저들에게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벗어놓으면 참된

안식을 얻겠노라고 전하거라. 바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느니라,

딸아...두 팔을 벌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전하거라,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기에 있는 사람은 제

사촌입니다. 저 젊은 남자가 제 사촌입니다. 주님, 저기 내려오고 있는 저 젊은 여자

또한 제 친척입니다. 제 가족도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그들은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하거라,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였다고 전하거라.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네가 가서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가서 네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한다. 만약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의 피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 바를 네가 가서 전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할 터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너에게 놓여진 책임은 제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저 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사탄숭배자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남자는 사탄과 계약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고 많은 펜들을 끌기

위해 마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마귀들이 걷는

모습이 다름 아닌 그가 공연할 때 보여준 스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즐기면서 마귀들이 괴성을 지를 때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죽은 뒤에 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죠?” 이 남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거나 혹은 마이클 잭슨의 펜인

사람이라면 저는 사탄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올가미로 가두려한다는

사실들을 당신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묶임에서

풀리셔서 결국 당신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딸아,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 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가서 그들에게 처음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저는 주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걷고 있었던 제 삼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넘기라고 전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전하거라.”

주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딸아, 그들은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가서 네 삼촌들에게 전하거라,

가서 네 친척들에게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딸아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충실한 증인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딸아, 비록 그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 거라. 딸아, 이제는 사람들이 이곳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노라.”